

-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건축물의 구조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제2호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3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4호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 없음.
- 제5호 : 건축법 규제 내용 검토의 건
 - 건축법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 조경설치 규정 200㎡→300㎡ 이상으로 완화 필요
 - 건폐율, 용적률(법 제55조, 제56조) :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하는 규정삭제 필요
 -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80조, 영 발표 15 제1호) : 위반범위에 대해 산정하도록 개선 필요
 -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규칙 제24조 제1항) :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3일 전으로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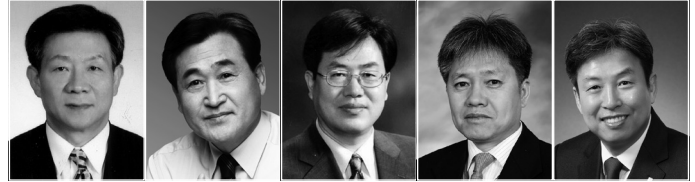
□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5일(금) 오후1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 협회 2015년 임원선거의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포함한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위원회 건의사항을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위원장이 검토한 뒤 집행부에 건의기로 함.

건축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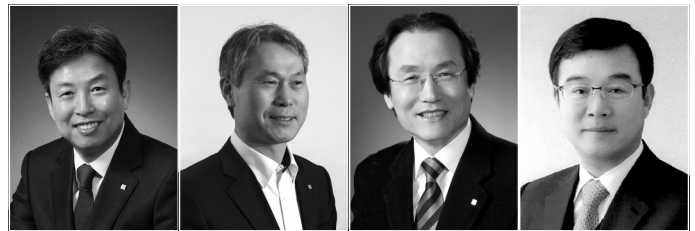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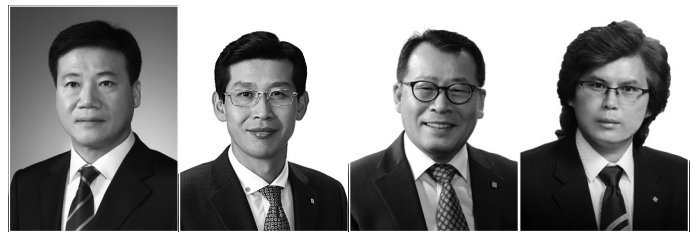
이근창 명예부회장 이성우 부회장 윤혁경 부회장 전찬흥 부회장 석정훈 부회장

협회는 지난 3월 5일 조총기집행부 출범 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명예부회장 1명, 부회장 4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명예부회장은 이근창 건축사(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성우 건축사(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윤혁경 건축사(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전찬흥 건축사(아트피아전찬흥 건축사사무소), 석정훈 건축사(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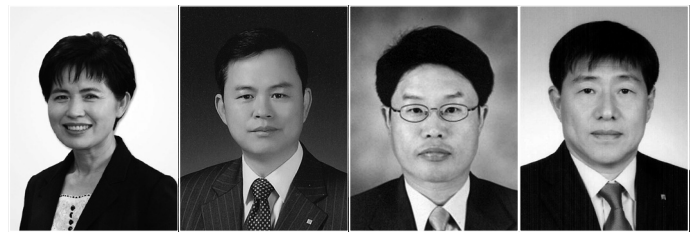
전국 시도건축사회, 신임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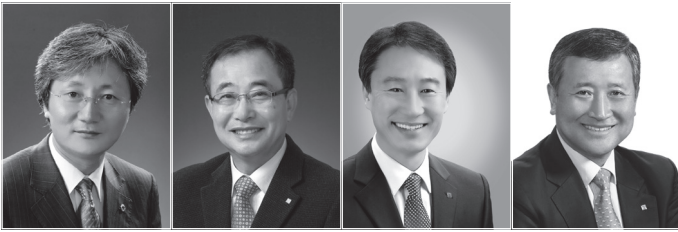
석정훈 회장(서울), 이만희 회장(부산), 최혁준 회장(대구), 윤희경 회장(인천)



정명철 회장(광주), 김재범 회장(대전), 손진락 회장(울산), 김순공 회장(세종)



황정복 회장(경기), 김성진 회장(충북), 박정준 회장(충남), 전병갑 회장(전북)



박용묵 회장(전남) 이재호 회장(경북) 조용범 회장(경남) 강영준 회장(제주)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강원도건축사회는 회장 재선출관계로 누락)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는 3월 한 달 동안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시도건축사회 회장은 총 12명이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3월 12일 조용범 건축사(경남·건축사사무소 범건축) ▲3월 13일 정명철 건축사(광주·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와 이재호 건축사(경북·건축사사무소 공간) ▲3월 16일 박용묵 건축사(전남·다산 건축사사무소) ▲3월 17일 김성진 건축사(충북·도담종합건축사사무소) ▲3월 18일 김재범 건축사(대전·쿠파 건축사사무소) ▲3월 19일 최혁준 건축사(대구·건축사사무소 이데아21) ▲3월 24일 손진락 건축사(울산·(주)화성 건축사사무소) ▲3월 25일 이만희 건축사(부산·(주)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윤희경 건축사(인천·(주)삼희 건축사사무소) ▲3월 26일 석정훈 건축사(서울·(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3월 27일 강영준 건축사(제주·강영준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총회에서 선출돼 3년간 시도건축사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한편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미리 선출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황정복)와 전북건축사회(회장 전병갑), 충남건축사회(회장 박정준)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올 초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회장 김순공)는 별도 회장선거가 없었다.

한편 3월 27일 열린 강원도건축사회 총회에서는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4월 24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익산건축사회, 익산시와 간담회 가져

익산지역건축사회는 3월 25일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익산지역 건축사 회원과 익산시 건축 관련 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안영묵 회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익산시에 건의했다. 익산시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개정 또는 폐지를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kaa.kita.or.kr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5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분할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경쟁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역을 이어가고 있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준공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5년 3월 2일 ~ 6월 5일
계획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5년 5월 26일 ~ 5월 29일
*자세한 공모란 내용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_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_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_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거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작품을 공모한다.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부문’과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참가신청은 준공건축물부문은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준공건축물부문 6월

8~9일, 계획건축물부문은 6월 2~3일 양일간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본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대통령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본상 수상작 4개 작품에는 국무총리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우수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상이 수여된다. 계획건축물부문 작품 주제는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Rejuvenation with a slight gesture)'이며, 대상 1점은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3점은 상금 20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수여된다. 또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1인을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나 본지 551호(2015년 3월호 103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상 그 이상의 한옥' 2015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The poster for the 2015 Hanok Competition features the year '2015' at the top, followed by the website 'http://competition.hanokdb.kr'. The main title is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5 Hanok Competition) in large, bold Korean characters. Below the title is a detailed architectural drawing of a traditional Korean Hanok village. At the bottom, there is a small inset box with the text '상상 그 이상의 한옥' (Hanok beyond imagination) and a list of sponsor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the Kore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and various architectural firms.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우수성 발굴 및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이며, 준공, 계획,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출품이 가능하며, 해당 한옥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의 경우,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디자인·설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계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으며, 특히 청소년 부문은 휴대폰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접수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모일정을 2개월가량 앞당겨 공모 참여자들이 충분한 작품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품과 수상자에 대해서는 전시회 및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competition.hanokdb.kr)와 함께 별도의 작품집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유일호 국토교통부 신임장관(사진·61)은 지난 3월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토부 업무에 들어갔다. 유장관은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신임장관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한나라당)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재선되면서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2012.12~2013.2)과 새누리당 대변인, 정책위원회 회의를 맡기도 했다.

김중업박물관 <여기, 이어지다:한·프 건축전>개막

**Exposition d'Architecture
Franco-Coréenne**

김중업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ICI, CON- TINUER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전

2015. 3. 27 관료일 — **5. 10** 일요일
김중업박물관 문화누리관 1, 2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2,000원 (신원전, 19세 이상 2,000원 19세이하)
문의처
031-687-0909
홈페이지
www.ayac.or.kr/museum

주최 프랑스문화재단 ANOUK LEGENDRE & NICOLAS DESMAZIERES (X-TU ARCHITECTS) /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David-Pierre Jalicon / 도미니크 페로 Dominique Perrault /
장순각 Jang Soon-gak / 장 누벨 Jean Nouvel / 장-미셸 빌모트 Jean-Michel Willmette /
정재현 Jeong Jae Heon / 정진국 Jeong Jin Guok / 김동진 Kim Dong-jin / 김용미 Kim Yong-mi /
로랑 보두앵 Laurent Boudouin / 로랑 살로몽 Laurent Salomon (A.S.A.) / 이은석 Lee Eun-Seok /
뱅상 코르뉴 Vincen Corou / 윤희진 Yun Hee-jin

김중업박물관은 개관1주년 기념기획특별전 <여기, 이어지다:한·프 건축전>을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과 프랑스 건축인은 아누 르장드르&니콜라스 데마지에르(X-TU Architects),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도미니크 페로, 장순각, 장 누벨, 장-미셸 빌모트, 정재현, 정진국, 김동진, 김용미, 로랑 보두앵, 로랑 살로몽, 이은석, 뱅상 코르뉴, 윤희진, 장 프루베이다.

건축사 김중업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France)를 사사한 후 귀국해 한국 근현대 건축의 성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중업의 건축유산에 되돌아보는 동시에, 이후 한국과 프랑스의 건축문화 교류와 발전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건축사의 한국 프로젝트 자료와 주한 프랑스건축사회 소속 한국 건축인들의 주요 작품이 모형, 스케치, 도면, 사진, 영상 등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관람시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중업박물관(031-687-0909/www.ayac.or.kr)으로 하면 된다.